

전문 종합 방재기관 으로의 도약을



신미년 한 해는 실로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미년 초의 걸프전을 비롯 소련의 쿠데타 등 세계적인 큰 사건들과 함께 우리는 지난 43년간의 숙원이었던 UN가입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동구의 탈사회주의와 독일의 통일에 이어 우리 나라도 통일의 길로 한걸음 다가서게 된 것은 물론, 세계 여러 선진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된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국내적으로는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 풍조와 사회 불안 등이 경기 침체와 더불어 암울한 그림자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맞닥뜨린 이런 힘든 고비를 넘겨보고자 각계 각층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소비 풍조 추방, 범죄와의 전쟁, 환경 문제 해결 등과 같은 각종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동으로 진일보한 우리 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미년은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여러 사건과 더불어 우리 협회도 큰 변화를 맞이한 해였습니다.

협회 설립의 근간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지난 91년 9월 3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법률의 시행규칙이 91년 10월 21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협회가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물 대상 지역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의 7대 도시에서 울산·부천·수원·성남의 4개 도시를 추가하는 11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비례한 재난의 증가에 따라 방재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협회의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사회의 변화에 따라 차근차근 전문 종합 방재기관으로의 역량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1986년에 설립, 다섯 돌이 지난 방재시협소는 그 동안 시험기관으로의 기반을 착실히 닦아 각종 방화관계 시험은 물론, 산업체의 유형별 위험관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 빛나는 실적을 쌓았습니다.

더불어 협회는 전문 기술 인력의 자체 능력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 급속히 발전하는 방재 기술 분야 정보를 이들에게 전달, 교육함으로써 이제는 국내 최고의 방재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밝아오는 '92년 임신년(壬申年)에 저희 협회는 더욱 발전한 방재 기술로 11대 도시의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점검과 방재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전문 종합 방재 기관으로의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 방재와 손해 보험 회사 및 특수건물 소유주 여러분을 위해 보다 발전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신미년 한 해 동안 협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사원회사, 특수건물 소유주, 관계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신년 새해에도 협회 업무에 보다 많은 격려와 충고 있으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새해 아침에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백주익